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 성경 신학, 2차 세션, 아담의 언약, 2부

© 2024 Jeffrey Niehau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아담의 언약, 파트 2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아담의 언약 고려 사항을 계속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에 맞는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나쁘지 않은 표현입니다.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 다른 신학과 관점을 가진 두 명의 다른 저자가 쓴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의미한다면, 저는 그것이 그것을 보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관점은 고대 근동의 자료와 서사의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설명을 받고 그 설명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고등 비평이 발전했을 때 고대 근동의 글은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외부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물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관해 비교할 만한 성경 외의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썼는지에 대해 원하는 대로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JEDP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인들이 쓴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런 견해가 있고, 이런 견해가 있었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 가지 모순된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영어학자이자 옥스퍼드의 영어 구약학자인 SR 드라이버는 아마도 영어권 세계에서 이것의 주요 지지자였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옥스퍼드에 고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대륙에서 만연한 고등 비판을 믿지 않는 사람을 확보하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라이버를 고용했을 때, 그는 성경에 대한 정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더 높은 비판적 관점으로 개종했고, 그 주요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Driver를 읽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창세기와 구약성경의 일부 내용을 보는 방식은 심각하게 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서로 다른 출처로 인해 이 두 가지 다른 문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이유는, 글썄요, 창세기 1장은 제사장 작가가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J와 E가 결합된 문서가 있습니다.

Priestly 작가는 반복적이고 공식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창세기 2장에서는 다른, 그저 흐르는 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고, 저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권에 있고, 제가 Journal of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에 언약과 서사에 대해 쓴 기사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1:1에서 2:3까지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고대 근동 목록입니다.

그리고 수메르 왕 목록처럼, 그것은 서사, 공식적 서론,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결론, 그리고 서사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록입니다. 고등 비평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반복적이고 목록과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P에게 돌렸고, 그들은 P가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나 저는 이메일이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무언가에 대한 서사적 설명을 쓰고 거기에 우리가 방문한 장소나 그런 것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만들기 위해 다른 작가를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작가는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리석긴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방식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게 있고, 창조의 순서도 다르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신은 먼저 동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겉보기일 뿐이며, 동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킹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서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고,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습니다.

글쎄요, 그는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것을 읽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 아담이 있었고, 그런 다음 신이 동물들을 만들고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창조의 순서로 내려가면, 그것은 번역에 달려 있습니다.

동사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한 것처럼 번역할 수 있지만, NIV에서 한 것처럼 과거완료나 과거완료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땅에서 모든 들짐승을 형성하셨고 등등. 그렇게 번역하면 모순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형성하셨습니다.

그는 그 전에 그들을 창조했지만, 지금은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모순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해야 할 것은, 드라이버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옥스포드에서 히브리어의 레기우스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신은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켄 키친은 그의 책, 고대 오리엔트와 구약성서에서, 그가 고대 근동과 그들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구약성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명명되었는데,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모순된 설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완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고대 근동 문서에서 우리는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키친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서로 다른 두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종종 주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두 기록의 엄격하게 보완적인 성격은 충분히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 창조를 일련의 마지막 부분으로 언급하며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반면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관심의 중심인 영국 학자이기 때문에 철자가 있습니다. 그와 그의 배경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중복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창조의 골격적 윤곽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그의 직접적인 환경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집중 사이의 주제 구분의 보완적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모호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모호주의는 당신이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경우이고, 당신의 주장을 읽는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당신의 주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덜 확실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그 정보를 억압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기대하지만, 학자들에게는 더 나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것은 서사적 자연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과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클라인은 오래 전에 그의 작은 기사 Because It Had Not Rained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땅에는 아직 들의 관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들의 풀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키친이 말했듯이, 당신은 사물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창세기 1-2장은 또한 과정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에만 암시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서사적 세부 사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이 성전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창세기 2장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원에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강화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9, 10에서 정원에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것과 이러한 유사점을 얻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에제키엘과 요한에게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길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종말론적 환상을 줍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고, 강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과일나무와 생명나무가 강을 따라 자라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저는 에스겔과 요한이 같은 계시를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요한에게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입니다. 후속 계시를 받으면서 특정 환상이나 교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할 때까지는 약간 신비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의 정점은 도시에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주님이 그의 보좌에서

천둥을 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는 듯합니다. 지상의 장막이 본떠진 천상의 장막이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인들도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성전을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로 이해한다면, 저는 이것이 Imago Dei의 근본적인 본질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그 형상은, 말하자면, 그의 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형상, 그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며, 그의 영도 담고 있도록 만들어졌고, 결국 새 언약을 통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성전이며, 모든 것이 해결될 때 그는 성전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늘에 신의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밖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차적인 듯합니다. 우연히도, 계시록 11장에 신의 성전이 있고, 그 책의 마지막 10장 뒤에 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고 한다면, 글썄요, 그것은 일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물론 계시록은 일련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그것은 하늘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시간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입니다. 일련의 사건이 있다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우주를 창조하면서, 하늘과 유사한 시간과 사건의 순서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탐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아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야기해 온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장소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습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보좌, 창세기 2장의 에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평행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글썄요,

그것은 에덴이 성전이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우리가 아는 것과 일치합니다 .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 종말 장소가 urzeit와 평행을 이룬다는 것은 확립된 성경적 원리입니다 . urzeit 는 독일어로 종말이 원시 시간과 평행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당신이 학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독일어와 라틴어를 좀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가 좀 있는 거죠. 이집트인들은 이것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파라오의 주요 임무가 모든 것을 처음처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적 사고방식과 성경적 사고방식 사이의 많은 주목할 만한 유사점 중 하나입니다. 매우 이례적이며, 그것의 광범위함, 정말로.

하지만 그건 다른 날의 문제입니다. 에덴의 성전적 특성에 대한 다른 증거는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지은 후, 주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그룹과 불타는 칼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그룹이 처음 등장하고, 그룹이 처음 언급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케루빔의 형상이 장막 커튼에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안과 밖 성전 방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의 성전임을 알고 있으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들 역시 섬기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케루빔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고대 근동에는 케루빔 형상이 있었습니다. 형상과 같은 형상입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어 어근인 카라 부에서 불렸는데 , 분명히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원과 궁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케루브와 케루빔이 사원을 지킨다는 생각이 있는 듯합니다. 우연히도, 그것은 케루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의 케루빔을 보면, 그들은 꽤나 파괴적이고, 네 얼굴과 그 외의 모든 것을 가진 엄청난 존재입니다. 저는 우연히 어느 교회에서 그 구절에 대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 전에 청소년 목사가 어떤 아이를 헌신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는 그 아이를 케루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루빔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사원 수호자인 듯합니다. 그럼, 사원으로서의 에덴.

이 창조된 질서에서,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글쎄요, 아담은 성령의 성전으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땅의 흙은 꽤 분명해 보입니다. 생명의 숨은 어떨까요? 성령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영의 성전이 되도록 자신의 영을 사람 안에 넣으셨다는 뜻인가요? 저는 증거가 여기서 부정적인 답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영으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영으로 살아 있었지만, 그 안에 영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서 매우 모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6-3장,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은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필멸자이기 때문이라.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contend로 번역된 동사는 remain in 또는 remain with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어로 어구 동사라고 불리는 것이고, 가장 좋은 번역은 remain with입니다. 우리는 John Wenham의 창세기 주석을 언급했고, 그는 그 관점을 취했고, 저는 그가 그것에 대해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든 웬햄, 실례합니다. 창세기에 대한 그의 해설이요. 제 생각엔 그가 옳습니다. 고든 웬햄은 우연히도 이곳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게스트로 초대되어서 이곳에서 가르쳤고, 제 생각엔 한 번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한 컨퍼런스에서 만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웬햄에 있는 고든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고든 웬햄입니다.” 그는 그것이 약간 초현실적이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6-3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 영이 내게 머물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 사람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그림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이해라면, 영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수까지 12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지만, 저는 그것이 말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지, 거주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엘리후가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들었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러한 평행한 콜라(kola) 는 여기서 히브리어에 대한 기술 용어이지만 , 이러한 평행선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그를 만들었고, 숨결, 니 샬마(ni shamah)가 그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니 샬마 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숨결, 그는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은 동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히려 동사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임(Chayim), 생명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엘리후는 오순절보다 훨씬 이전에 타락한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타락 이후이지만 오순절 이전의 인간들은 영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도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시고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인간에 의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아무도 성전, 아담 또는 다른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았고, 그 말씀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약성경에서 성령이 누군가 안에 거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 말씀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살펴볼 것이지만, 여기서의 표시는 엘리후가 선한 사람이지만, 그는 타락한 사람이고, 그는 오순절 전이기 때문에 그에게 영이 거한다는 표시는 없지만, 그를 만들고 그를 지탱하는 영이 있고, 영과 호흡은 평행을 이루고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글쎄요, 알겠어요, 엘리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욕기에서 꽤 인정받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있을 뿐이고, 그가 정확히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여드리지 않지만, 이사야 42:5를 보면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루아흐, 즉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루아흐를 주시고, 네샤마, 즉 호흡을 주신다고 합니다. NIV는 루아흐를 거기서 생명으로 번역하지만, 이사야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 루아흐, 즉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것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을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영의 성전이 아닙니다 .

그래서, 하지만 이것들은 동일하고, 이것은 확실히 타락 이후에 아무도 영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어떻게든 루아흐와 네샤마를 가지고 있고, 아담이 네샤마를 그에게 붙여넣었다면, 그것은 그가 그를 지탱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의미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숨결이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아담과 엘리후가 이 점에서 평행하고, 이사야에 따르면 지구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아담은 영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오, 그리고 네, 알아요? 제가 이것을 포함시켰다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사람에게 숨을 주고, 그 위를 걷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은 사실 여기서 영입니다. 좋아요, 일반 은혜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영의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영과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은 구약에서 더 광범위하게, 영이 누군가와 관련하여 이야기될 때 거의 항상 전치사 upon 또는 to가 사용되고, 여기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점은 다시 한번 성령이 누군가 안에 거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증거에 따르면 아담이 영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자신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성령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이해이기도 하며, 때때로 사람들은 그가 사탄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다면 어느 시점에서 성령이 그를 채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합리적입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타락 후에는, 확실히 아무도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 용어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주하는. 하지만 사용되는 다른 표현들이 있고, 우리가 말했듯이, 대부분 전치사 upon, 때로는 전치사 to

입니다. 민수기 11장을 살펴보면, 모세는 내가 너희 위에 있는 영을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에게 영이 거했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에게 있는 영을 그들에게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가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도울 70명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했을 때, 그것은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의 행렬이 사울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그에게 임했고, 그는 그들의 예언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나요? 그리고 그는 나가서 왕국의 일을 하지만, 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 모세 이후에 구약 시대에 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다윗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날부터 우리는 주님의 영이 문자 그대로 권능으로 다윗에게 내려왔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영이 그와 함께 있고, 그에게 내려오고,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 사람 안에 영을 가진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기능이나 업무를 위해 일시적이거나 가끔씩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이교도적인 생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오, 우리는 이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신이나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글썄요, 주님이 요셉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셨고, 파라오는 이것에 신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성한 영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파라오가 아는 전부입니다. 파라오에게서 성령에 대한 정확한 신학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게 그의 인상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는 "내가 지혜를 준 숙련된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는 아론을 위해 옷을 만들 지혜의 영으로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그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영이 그들 안에 거주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살렐,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장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이 모든 기술과 능력을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이 그 안에 거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위해 그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5:31에서 35:31까지, 그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32, 예술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33, 돌을 깎아 고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35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위해 임한다는 새로운 그림입니다.

이 표현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누군가를 그의 영으로 채우신다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영이 항상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심지어 미가 3장에서도, 나는 주님의 영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고, 정의와 권능으로 야곱에게 그의 범죄를 선포합니다. 야곱에게 그의 범죄를 선포할 영으로 충만합니다.

합리적으로,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적 일이 끝나면 그는 더 이상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은 데이터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정말 엄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미가서를 읽으면, 글썄요, 그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요.

그게 요점이 전혀 아니에요.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과 많은 문제들에서 진실을 밝히려면 엄격해야 해요.

좋아요, 다니엘에서, 여기서 또 다른 이교도적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왕국에 벨사살의 잔치에서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왕은, 글썄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그녀는 다니엘이 한 일 중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그가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썄요,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어떤 신성한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다신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실제로 무엇을 이해합니까? 영이 항상 다니엘 안에 머물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도 성전을 부른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쉬웠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은 에스겔 36:27인데, 거기에는 지금 모세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열린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한 약속, 나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를 움직여 내 법령을 따르게 하고 내 율법을 지키는 데 주의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새 언약의 위대한 약속에 대한 예고입니다.

비슷한 것이, 유배와 회복과 관련된 진술을 둘러싼 사건의 관점에서, 신명기 30장에서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평행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내가 너희의 마음을 할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영으로 행하는 것을 배우는 동일한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할레는 영으로 행해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마음을 할레하라는 말씀과 권고를 받았는데, 물론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할레를 받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에서 그것에 대한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법을 지키도록 너희를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영, 사람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서 흐르고 흘러가는 영의 기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읽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를 믿는 자들이 나중에 받게 될 영을 의미했습니다. 그때까지 영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영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인이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는 남아 있거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그는 있을 것입니다.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옛 언약 하의 삶과 새 언약 하의 삶 또는 새 언약에서의 삶의 차이를 완벽하게 포착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영을 갖는 것은 꽤 좋습니다.

다윗은 매일 그에게 영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어. 병자를 고쳤어. 귀신을 쫓아냈어.

당신과 함께 영을 갖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영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당신을 움직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위해 더 많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에서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그 표시는 그가 그 안에 거하는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아담의 언약 자료, 여성의 창조에 관해서는 창세기 2장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말했듯이, 많은 문제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 결혼 등에 관한 논란과 남녀 간의 문제가 가끔씩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 . 다시 말하지만, 저는 데이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은 여자를 돕는 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글썄요, 그것은 확실히 종종 주님을 구원자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가릿어 단어와 관련이 있고 , 그 단어는 힘을 의미하므로 아마도 권능이나 자원을 의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존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용어의 성경적 용도는? 압도적으로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도우미로서 신에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도 사용되며, 에스겔 12장에는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지만, 이것이 가장 명확한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자가 유배를 가는 것을 돕는 자들. 나는 그의 사방에 그의 지팡이와 문자 그대로 그의 도움과 그의 모든 군대를 바람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의 지팡이.

번역된 방식입니다. 군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이 경우, 에제키엘에 있습니다. 분명히, 왕자의 조력자들은 왕자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돕는 자로 만드실 때 돕는 자라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완전히 모호한 그림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그녀가 , 글썄요, 아마도 그녀가 그 위에 있는 신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떤 역할적 의미에서 그에게 종속된 이스라엘의 왕자의 돕는 자와 같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의 동등자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만약 우리가 이것에 대해 지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려면, 용어의 의미에 관해서 그 부분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는 그녀를 여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녀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적합한 돕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Keneg는 before, in front of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둘 다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연락할 수 있어요. 관계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그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창세기 1:27에서 역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의 역할에서 어떻게든 아내의 머리인지 아닌지, 등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남자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그녀는 그를 남자로부터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 오히려 바울은 이 건축의 관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 영광스러운 몸,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은 두 사람이 창조된 순서에 대해 뭔가를 합니다. 여자는 남자로 만들어졌고, 남자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따져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자료를 보면, 심지어 3 장에서도, 모든 것이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종류의 증거를 사용하여 한 가지 입장이나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지 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신이 당신에게 은혜로우시다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지적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름 붙이는 건 어때요? 종종 말하죠, 글썄요, 그는 그녀에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것은 그가 그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 붙이는 것의 중요성. 신이 사물에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는 관용구는 동사 to call과 전치사 to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도 같은 관용어가 쓰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23에서 그녀는 남자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에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태에서 같은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우에, 당신은 같은 관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일반적인 이름, 말하자면 여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것에 이름을 붙일 때와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는 관용어와 같습니다. 좋아요, 글썄요,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창조된 질서에게 그러하듯이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관용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러한 이름 관용어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귀결될 것인가입니다. 타락 후에 그가 그녀에게 이브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다른 관용어가 사용됩니다. 우연히도, 저는 타락 전의 그녀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타락 후에야 이브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아담은 그녀에게 고유한 이름을 줍니다. 타락 전에 그는 그녀에게 일반적인 이름인 여자를 줍니다. 타락 후에 그는 그녀에게 고유한 이름을 줍니다.

그게 그녀의 개별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존재하다 또는 살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녀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관용어는 다릅니다.

같은 동사를 부르다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단어와 함께 소유격 구조로 nam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문자 그대로 아내나 여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이 관용어의 차이가 유의미한가? 즉, 여기의 관용어 to call to와 여기의 관용어 to call the name of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가? 유의미한 차이라는 표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녀를 Eve라고 부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Eve라고 부르는 관용어는 어떨까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글썄요, 그것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용됩니다. 나중에 도시 이름을 지을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이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실 때 쓰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는 분명히 이름을 지은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권한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정체성을 부여할 권한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그게 표류하는 듯합니다. 그럼, 글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게 의미하는 바는, 아담이 사실 그녀에게 이름을 지었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타락한 후에, 그래서 당신은 그가 그녀에 대한 권위를 찬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같이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같은 관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신 후, 우리는 그녀가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이 이름을 지었다고 읽습니다. 아담이 아내에게 이브라는 이름을 지을 때와 같은 관용어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녀가 그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명, 여기서 합리적인 결론은 명명 관용어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명명자 가 명명된 사물에 이름을 붙일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유 이름을 부여할 권리의 찬탈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용어에 권한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글쎄요, 여자를 창조한 파생적 방식은 어떨까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남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어 살로 그 자리를 막았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 주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거나 지으셨습니다. 좋아요, 글쎄요, 저는 그것이 그 자체로 간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땅의 먼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땅의 먼지가 아담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더 높은 질서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구절에서 그런 종류의 것을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신학을 조금 하고 싶고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다면,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여자가 조용하고 온전히 복종하면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자가 남자에게 일하거나 권위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묵해야 합니다. 아담이 먼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브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한 명 이상의 학자의 생각과 주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썄요, 여기 에베소의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었고, 여성들이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명령, 그의 명령, 디모데에 대한 그의 지시는 에베소에 특화되었고, 교회에 특화되었으며, 그 중요성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진술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그것은 약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호소는 에베소의 상황이 아니라 창조된 질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대로 둡니다. 사람들은 그것과 씨름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볼 때, 요점은 우리가 이 매우 간결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도출하는 결론을 제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신약성경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Meredith Kline의 또 다른 학생이자 현재 Gordon Conwell의 시간강사인 Gordon Hugenberger를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잠시 가르쳤고, 수년간 Park Street Church에서 목사로 일했으며, 지금은 시간강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울이 실제로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역에 참여하는 여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주장이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는 좋은 형이에요. 저는 그를 사랑해요.

하지만 원하시면 읽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해보세요. 글썄요, 창세기에서 남녀 결합에 대해 우리가 발견하는 가족적 또는 관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남자와 아내에 대해 무엇을

읽었을까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용어는 동사 cleave to로, 히브리어로는 to를 밀접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신명기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 맥락에서 나중에 등장합니다. 당신은 주 하나님을 따라야 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은 매우 흥미로운데, 제 생각에는 주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결혼 관계라는 개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말론적으로 봅니다. 물론 바울도 이에 호소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창세기 구절 중 일부를 나중에 다룹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사역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해 쓰고 창조 질서에 호소한다면,

여기서 그는 결혼 관계에 대해 쓰고 있지만 창조된 질서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바는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는 말씀으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의 어떤 흠도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빛나는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시려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느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먹이고 돌보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니라.

그리고 그는 여기서 창세기 2:24를 인용합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리라. 이는 심오한 신비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글쎄요, 여기서 바울을 인용하자면,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여기서 결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4절에 매우 강력한 진술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인용하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꽤 강력하게 들립니다. 21, 21, 22절에서 실제로 복종이라는 용어의 이중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전 구절은 분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상호 복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실제로 22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옮겨서 이해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21 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주님께 관해서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의 이중 용도입니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제가 식료품점과 우체국에 갔다고 하면 동사 I went가 우체국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 went to the post office.

동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평등주의적 입장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그것은 두 배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는 상호 복종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22절에서 가정됩니다.

그러니 거기서도 상호 복종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밝혀주었으면 좋겠지만, 매우 결함이 있는 추론입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그것은 좋은 주장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중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두 경우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22절의 진술은 꽤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의 한 부분에 할당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어떤 견해를 취하든,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듯 아내를 섬깁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곧 그의 몸을 돌보시는 것처럼 아내를 돌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거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한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자료를 보고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종종 말하듯이, 저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보완적 결혼이라고 부를 만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포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평등주의자인 여성들이 저희 결혼 생활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평등주의 결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제 아내는 하버드에서 응용 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날씨 전선의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꽤 똑똑합니다. 그녀는 꽤 유능합니다.

그녀는 직업을 추구하지 않고 아이들을 홈스쿨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결정을 공유합니다. 제가 리더로서 하는 일은 실제로 영적인 인도가 있고,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고상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낸다는 주장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완적 결혼이 폭정처럼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완적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 관계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성경적 자료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데이터라고 말하는데, 사실 데이터는 라틴어로 datum 또는 datum의 복수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긴 하지만, 예를 들어, 라틴어로 경기장의 복수형은 stadia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stadia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도가 변하고 용법이 바뀌죠. 하지만 라틴어 복수형이기 때문에 저는 복수형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들으면, 제가 한 번 이상 말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결론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복종하는 것의 이중적 용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24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구절들은 적극적인 해석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는 평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가끔씩 우리는 신약성서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결국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이 있고 살펴봐야 할 무언가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창조 언약에 대한 우리의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언약에 대한 논평을 계속할 때, 우리는 그 언약의 맥락에서 여자와 남자가 언약을 어길 때 일어나는 일과 그 모든 역학과 불행한 결과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의 것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아담의 언약, 2부입니다.